

중고차·K-뷰티 쌍끌이… 中 수출 1186억달러 ‘역대 최대’

중기부, ‘2025년 수출 동향’

전년 1110억 달러比 6.9% 증가
중고차, CSI·중동서 수요 급증
18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기록
화장품, 美서 오프라인 공략
유럽·중동 두 자릿수 이상 올라

중고차와 ‘K-뷰티’를 대표하는 화장품이 이끄는 중소기업 수출이 지난해 1186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수출이 내림세를 기록했던 중국이 3년 만에 우리의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9만8219개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10만개를 넘지 못했다. 중소기업이 화장을 수출하는 국가는 200곳이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수출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잠정치)은 전년의 1110억 달러보다 6.9% 늘어난 1186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역대 중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소기업 수출은 2021년(1155억 달러), 2022년(1145억 달러) 순으로 많았다.

중소기업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중고차, 화장품이 주도했다.

중고차는 작년에만 90억 달러를 수출하며 전년보다 무려 76.3% 증가했다.

특히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인 카자흐스탄(106.0% ↑), 카자흐스탄(107.2% ↑)이 한국 중고차 수요가 폭발

적으로 늘었고 아랍에미리트(91.2% ↑) 등 중동(58.6% ↑)으로도 많이 나갔다. 중고차 수출은 2024년 7월 이후 18개월 연속 늘어 매달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83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1년 동안 21.5% 증가한 화장품은 중고차에 이어 중소기업 수출 2위 품목에 올랐다.

화장품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메이저 유통사에 한국 화장품이 새로 입점하는 등 오프라인 판매 채널 확대도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과 중동 지역 수출 역시 두 자릿수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 국가는 2022년 194곳에서 192곳(2023년)→197곳(2024년)을 거쳐 지난해에는 204곳을 기록했다.

특히 화장품 총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67%에서 지난해에는 72.5%까지 늘었다.

중소기업 수출 품목은 이외에도 ▲플라스틱 제품(48억 달러) ▲자동차부품(43억 달러) ▲반도체제조장비(32억 달러) ▲반도체(32억 달러) ▲합성수지(30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수출 국가는 중국이 3년간의 부진을 털고 최대 수출국으로 재부상했다. 현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K-패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확산으로 화장품, 의류 같은 소비재 수출 증가와 동제품, 플라스틱제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수출액 상위 국가는 중국 외에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키르기스스탄, 인도, 러시아, 멕시코가 차지했다. 이 가운데 중국, 일본, 홍콩, 대만으로의 수출이 지난해 늘었다.

미국은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한 수출 여건에도 화장품, 전력용기기(변압기 등)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2위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출지원정책 확대와 기업의 노력이 맞물려 전반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보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관세 등 통상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수출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中 10곳 중 7곳, 外人 1년내 이직요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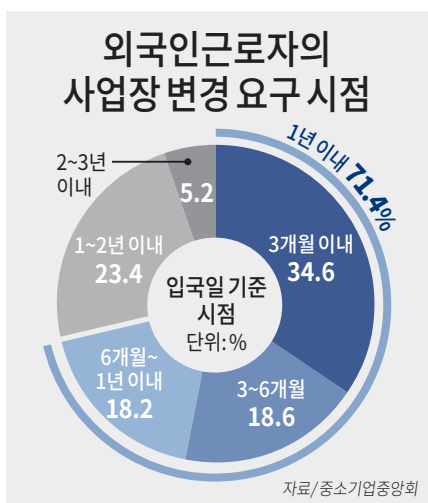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E-9 사업장 변경’ 조사
71.4%, 입국 1년 내 이직 요청
34.6%, ‘3개월 이내’ 최다 응답
48.7%, ‘초기 3년 제한’ 현행 유지

“사장님, 나 다른 곳으로 갈래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1년내에 이직 요구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곳 중 1곳은 현행 ‘외국인력(E-9) 사업장 변경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31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E-9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 관련 의견조사’에서 나왔다.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력의 이직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사업장변경 제도를 두고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8.7%가 초기 3년간 변경 제한이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는 ‘2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31.6%), ‘1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19.7%)이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74.5%는 현행 제도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요구 시점은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가

71.4%였는데 이 중에서도 ‘3개월 이내’(34.6%)가 가장 많았다. 특히 3개월 이내 변경 요구를 받은 비수도권 기업의 비중(37.8%)이 수도권 기업보다 8.3%포인트 높았다.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될 경우 중소기업(복수응답)들은 ‘영세 기업의 인력난 심화’(61.3%)를 가장 우려했다. ‘납기 준수 어려움 등 생산성 하락’(54.2%), ‘도입·취업교육 비용 및 직무교육(OJT) 기간 등 유·무형적 손실 확대’(43.5%)에 대한 우려도 컸다.

사업장 변경 제한이 현행보다 완화될 때 제일 시급한 보완 정책(〃)으로는 ‘이직자 발생 시, 해당 기업에 E-9 우선 선발’(60.6%)이 1순위로 꼽혔다. 아울러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노동자 책임이 명확한 이직에 대한 페널티 부여’(59.5%), ‘기숙사 설립·운영비용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45.3%) 등도 언급됐다.

/김승호 기자

에코프로, 창사 첫 유럽 판매법인 설립

통상규제 강화에 현지대응 체계 구축

에코프로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럽 현지에 판매 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헝가리 생산 거점 구축에 이어 판매 전진기지까지 확보하면서 강화되는 유럽 통상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현지 고객 접점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에코프로는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해 독일에 유럽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김벌비르디(Kimbal Virdi) 이사를 법인장으로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출범한 유럽 법인은 급변하는 유럽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환경 속에서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유럽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최근 유럽 시장은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발효를 계기로 역내 조달 규제가 강화되면서 완성차(OEM) 업체들이 핵심 소재를 직접 확보하

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에코프로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해 유럽 법인을 중심으로 고객사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에코프로는 지난해 11월 헝가리 데브레첸에 양극재 공장을 준공하며 유럽 내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이번 판매법인 설립을 계기로 생산과 판매, 마케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지 배터리 셀 메이커와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제품 포트폴리오도 유럽 시장 특성에 맞춰 다변화한다. 소형 전기차 비중이 높은 유럽 시장을 고려해 하이니켈 양극재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과 성능을 동시에 갖춘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를 중심으로 대응 폭을 넓힌다.

이와 함께 유럽 내 잠재 고객 발굴과 더불어 현지 리사이클 업체와의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원관희 기자 wkh@

에스원 ‘AI 빌딩 에너지 솔루션’ 주목

AI가 에너지 사용패턴 분석
냉난방·조명·환기 최적 제어

올 겨울 연일 한파가 이어지며 노후 건물의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스원의 ‘AI 빌딩 에너지 솔루션’이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에스원에 따르면 ‘AI 빌딩 에너지 솔루션’은 AI가 에너지 사용 패턴을 학습해 최적 운영 방안 제시하고 ESG경영까지 돕는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과 IoT 센서를 활용해 동파·침수 사고를 막는 ‘스마트 건물관리 시스템’으로 구성

된다.

빌딩에너지 관리시스템은 건물 곳곳에 설치된 센서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AI가 자체 알고리즘으로 이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잡아낸다.

AI는 냉난방·조명·환기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24시간 감시하다가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 즉시 알려준다. 또 언제 어떤 설비를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필요하면 시스템이 직접 설비를 제어해 에너지 낭비를 막는다.

실제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빌딩은 도입 첫 해 에너지 사용량을 5.4% 줄였고, 청담동의 빌딩은 7.3%를 절감했다. 에너지 비용이 연간 10억원인 건물 기준 각각 5400만원, 7300만원을 절약한 셈이다.

ESG 경영도 지원한다. AI가 실시간으로 수집된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고 에너지원별 배출 계수를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으로 산정한다. 기업은 별도 집계 작업 없이 자동 산정된 데이터를 ESG 보고서에 활용할 수 있다.

IoT 센서 기반 스마트 건물관리 시스템은 기계실과 배관실 등 핵심 설비에 온도·수위 센서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에이스침대, 싱글 침대 ‘올리보’ 선보여

브리티시 레트로 스타일
‘투 매트리스’ 시스템 적용

에이스침대가 브리티시 레트로 스타일의 싱글 침대 ‘올리보(OLIVO)’(사진)를 출시했다.

29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올리보는 브리티시 레트로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브릭 침대로 편안함과 세련미의 조화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헤드보드의 톤 다운된 올리브 그린 컬러와 정갈한 체크 패턴은 침실 공간에 평온하면서도 생기 있는 무드를 선사한다. 자연의 색감을 담은 컬러로 내추럴·모던 컨셉의 인테리어와도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이

특징이다.

110mm 두께의 볼륨감을 자랑하는 헤드보드는 모서리를 부드럽게 라운드 처리해 시각적·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전면에는 탄탄한 쿠션을 적용해 기대었을 때 높은 편안함과 지지력을 제공하며, 상면과 측면에도 동일한 쿠션재를 사용해 생활 속 안전성까지 고려했다.

수면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로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트윈 침대 구성에도 적합하다. 개인의 수면 습관과 선호도에 맞춰 매트리스 경도를 선택하여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고급스러운 침실 분위기까지 연출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